

# 산업현황 브리핑

##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2018년 6월 21일에 시행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서는 어린이용 기저귀가 첫 대상이 될 정도로 국민들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위생용품의 종류로는 아래의 그림에 나와있는 19종이 포함되며 `18.12.18. 현재 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 지정된 기관은 총 9개소로 서울 2개와 충청 1개, 부산 1개 경기지역에 5개소가 있다.

순위	분류	제품군
1	위생용품	어린이용 기저귀
2	화장품	분류지
3	식품	GMO 식품
4	식품	즉석조리식품
5	농축수산물	달걀
6	위생용품	화장실용 화장지
7	식품	영·유아식
8	식품	생강기름 조제식
9	식품	알루미늄 호일
10	농축수산물	기타 수산물

\* 제도 시행 이후 현재(4.24~6.7) 총 118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5건을 추천 대상으로 분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성유센터는 메디컬 소재를 뛰어 넘어 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 또한 시험·검사기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경북권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부재로 (재)경북테크노파크가 대구·경북권 유일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첨단메디컬융합성유센터 연구시험인증팀 정정애 연구원〉